

그리움 물든 상사화 물결... 영광의 9월 '붉은 유혹'

불갑산 상사화 축제 9월 13~19일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영 원히 만날 수 없는 꽃'이라 하여 '잎은 꽃을, 꽃은 잎 을 서로 그리워한다'는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꽃 이 상사화다.

7~8월 진노랑상사화를 시작으로 연노랑상사화, 백양상사화, 붉은상사화 등이 9월이면 영광의 불갑 산을 온통 붉게 물들인다.

●애절한 사랑 이야기 간직한 불갑산 상사화

잎과 꽃이 결코 만날 수 없다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상사화. 다른 말로는 석산이 라고도 한다. 어느 꽃이든 꽃말은 슬프고 아련한데 이 꽃은 흔하지 않게 남자가 여인을 못 잊어 병에 걸 린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일명 꽃무릇으로 불리는 상사화는 산기슭이나 풀 밭에서 군락을 이루며 사찰에서 심기도 한다.

불갑사에도 상사화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경운'이라는 스님이 불갑 사를 창건한 마라나타 존자의 고향인 간다라 지역 으로 유학을 떠난다. 스님은 법회에서 만난 간다라 지역 큐산 왕의 공주와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스님을 추방하게 되고 공주는 '내 세에서라도 사랑을 맺자'며 작은 화분에 참식나무 한 그루와 작은 씨앗을 선물로 주었다. 불갑사로 돌아온 스님은 '같이 있어도 같이 하지 못하듯 함께하 지 않아도 같이 있음'을 되뇌면서 나무 아래서 열반 에 든다. 9월이 되자 스님이 정성껏 길렀던 참식나 무 밑에서 꽃이 피어나는데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스님들은 경운 스님의 사연을 떠 울리면서 상사화라 했다고 한다.

●전국 최대 상사화 군락지서 추억 쌓기

전국 최대의 상사화 군락지로 알려진 불갑산 일 대에서는 다음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제 18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열린다.

축제가 시작되는 9월이면 일주문에서 불갑사까 지 조성된 공원에는 붉게 물든 상사화의 물결로 장 관을 이룬다.



대한민국 대표 가을축제 자리매김

애절한 사랑 품은 꽃길 걷고

남도 인심·먹거리 특별한 추억

인도 공주 야간 퍼레이드 즐기고

소원등 달기·가요제 등 행사 다채

산악인 등산복 맵시 선발대회도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했다. 전시(상사화, 야생화, 사진 등)·체험·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상사화 참사랑 꽃길 걷기와 인도 공주 야간 퍼레이드, 상사화 결혼식, 참사랑 소원등 달기, 어린이 가요제, 커플 가요제, 전국 다문화 모국 춤 페스티벌 등이 열린다.

참사랑 소원등 달기 체험(참가비 5000원)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불갑산 상사화 축제 당일인 19일까지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또 산악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산악인 등산복 맵시 선발대회'도 개최한다. 축제



다음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최대의 상사화 군락지 불갑산 일대에서 제18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축제 모습. <영광군 제공>

기간 중 매일 열리는 이번 등산복 맵시 선발대회(참가비 1만원)에서는 등산복 패션쇼, 장기자랑 등을 펼쳐 상품과 기념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소원성취 사랑의 연줄 드리우기, 상사화 예술제 등의 문화행사와 SNS 사진 인증샷, 상사화 우체통 편지쓰기, 상사화캐릭터 티만들기, 상사화 캐리커처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가을축제로 손꼽히는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찾아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란다"면서 "영광군의 수려한 경관과 남도의 인심, 먹거리가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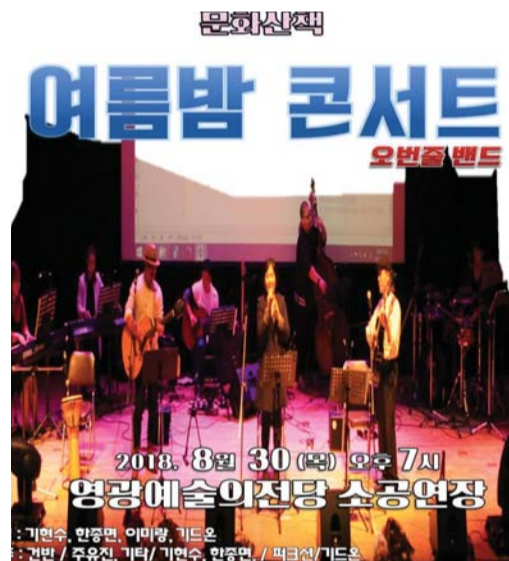
한편 올해로 18회를 맞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문화관광육성축제이자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돼 축제의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불갑사 공원에 조성된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상사화 여인 조형물.



영광 예술의전당서 30일 '여름밤 콘서트'

영광군은 오는 30일 오후 7시에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여름밤 콘서트'를 공연한다. 23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는 영광예술의전당이 매월 마지막 주에 추진하고 있는 공연이다.

들꽃처럼 순수하고 넉넉한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겠다는 의미의 '오변줄 밴드'는 포크락, 팝, 세미클래식 등 자연 친화적 인간 중심의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로, 기현수(보컬/기타), 한종면(보컬/기타), 이미광(보컬), 기드온(보컬/타악기), 주유진(건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리더 기현수의 자작곡 '그 꽃'을 시작으로 '송어', '이야기,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over the rainbow' 등 귀에 익은 포크송 연주로 깊어가는 한여름 밤을 잔잔한 감동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광군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문화교육사업소가 주관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을 찾아오시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 관련 기타 자세한 정보는 영광군청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영광예술의전당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



영광 인삼제품 중국 수출 협약식

영광군이 지난 20일 중국 CP그룹 협력사인 북경동진유한공사(회장 김태희)와 영광군 브랜드 인삼제품 중국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 제공>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적와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